

〈수상소감〉

늦게 도착한 편지

조은주*

올해 2월 저는 뜻밖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. 제가 발표한 논문 「이상 문학의 건축학적 시선과 ‘미궁’ 모티프」가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현대문학 분야 우수논문상에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지요. 여전히 부족한 제기는 과분한 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쓰게 된 뒤늦은 수상소감이 제게 여러 생각들을 안겨줍니다. 저는 며칠 전 제게 도착한, 수취인 불명인 이 두 번째 편지에 답장을 써보고자 합니다.

학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석사논문일 것입니다. 학부시절, 제대로 된 소논문 하나 작성해 본 일 없었던 제게 석사논문을 쓰는 일은 참 고되고 벼거운 작업이었습니다. 석사논문을 쓰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그 누구도 논문을 대신 써줄 수는 없다는 점, 결국 모든 것이 ‘커서’의 깜빡임을 응시하고 있는 저의 몫이라는 점이었지요. 이 당연한 사실을 온 몸으로 체감하며 제가 얼마나 외로운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주셨던 선생님들과의 면담이 끝나고, 학교 베란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누던 동학들과의 담소가 끝나면, 늦은 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에 남아있는 것은 ‘이상’ 텍스트였습니다. 이상과 저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지요.

이상을 대상으로 겹도 없이 여러 편의 논문을 썼지만 아직도 이상은 다

*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

양하게 읽히고 해석될 여지가 무궁무진한 영토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상을 읽으며 탈식민주의, 민족주의, 낭만주의, 근대성 담론, 정신분석학 등과 같은 이론서를 공부해야 했고, 이상을 읽으며 그의 친구인 구인회 회원들, 즉 김기립, 정지용, 박태원 등을 함께 읽었고, 그림과 음악,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건축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그의 텍스트를 보며 1930년대를 주도했던 건축이념과 바우하우스의 총체적 인간상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,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. 그러니 지금 제가 가장 고마움을 전해야 할 사람은 이상일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

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저를, 격려해주시고 싶었던 것이겠지요? 선생님들의 뜻을 새기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외롭게 글을 써보겠습니다.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신범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의 여러 선생님들,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학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. 수료하고 나서야 202호와 당신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. 늘 그리움을 안고 있다는 것, 제가 말씀드린 적 있던가요. 박사논문을 준비하며 막막한 심정으로 책장을 넘기던 요즘이었습니다.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지요. 조금 늦게 도착한 편지이지만, 안부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이제 겨울로 가득차 있습니다. 평안하시길…….